

2. 마지막 일들 - 14.

생명책 (THE BOOK OF LIFE)

“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 (빌 4:3)

* * *

1. 우리의 ‘마지막’은 처음부터 계획되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아담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차후대책으로 내놓으신 해결책이 아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한다(벧전 1:20).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것은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된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일도 우리의 죄로 인해 구원받을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기”(엡 1:11)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또는 구원의 예정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바로 “생명책”이다(시 139:16).

시 139:16 _____

하나님 백성의 이름은 창세 전에 이미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 세상이 만들어 진 후에서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계 13:8)고 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가인과 아벨을 시작으로 의인의 계보와 악인의 계보가 뚜렷이 나뉘어 퍼져 나간 것은 사람들이 각자 의와 악을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책에 ‘의인의 이름’을 미리 기록하셨기에 나타난 결과이다. 즉,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우연의 일이나 사람이 결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엡 1:4-5)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지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이다.

Q. 우리는 고통 중에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나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으시냐고 항변하기도 한다. 내 인생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이름과 내가 바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위로와 삶의 확신이 되는가?
시 56:8 (참조, 창 15:13-14; 마 10:30) _____

Q. 고난의 상황과는 반대로 대단한 성취를 맞볼 때 우리는 기쁨에 취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최고의 복’이 과연 성취인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인가?
눅 10:20 _____

* * *

2.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실 때 ‘완료된 사실’로 기술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 중 하나가 히브리서의 기록이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히 12:22-24).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교회”이다.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사람들 가운데서 임의로 선별된 집단이거나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만들어진 무리가 아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의 또다른 표현으로 소개되어 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란 땅이 생기기 전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을 써 놓으신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창세 전에 기록된 대로 나타난 결과이고, 또한 교회는 벌써부터 하늘에 그 자리를 두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역자들을 일컬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했다(빌 4:3).

빌 4:3 _____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서로를 알아본다. 이들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한 뜻을 품고 동역한다. 그 증거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서도 확인된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춰져 있다가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며, 악인들의 행동을 부러워한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피차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서로 소통한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구별된 모습을 가지는 이유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신다. 말라기 말씀의 한글성경 번역은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다. 이름의 기록이 나중 사건인 것처럼 이해되는 번역인데 이것은 “위하여”라는 말을 덧붙여서 생겨난 결과이다. 이 구절을 문자대로 번역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대적하는 말을 하는)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억하는 책이 여호와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이다. 하나님 백성 안에 섞인 무리들이 진리를 왜곡하여 악성 종양과 같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때,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신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며, 또한 주의 백성들이 불의에 합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르며 살기 때문이다(딤후 2:14-26).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인하여 교회는 땅에서 흔들림 없이 존속되는 것이다.

딤후 2:18-19

그러나 하나님의 참 사람들이 서로 동역자가 되어 교회를 지킨다고 해도 현세에서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아있을 지를 온전히 구별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한 날에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억하고 계신 자들을 분명히 구별 지으실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 날에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겼는지가 명백히 판가름 나는 것이다.

말 3:16-18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이 땅에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럴 만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출 32:33). 이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던 모세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던 중에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범죄자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세와 사무엘의 중재기도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뀌지 않는다고 못 박으셨다(렘 15:1). 에스겔을 통해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겔 14:14-16)고 하셨다.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악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용서 없는 영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차후대책이 아니 듯이, 또한 그분의 죽음은 구원받지 못할 이를 위한 헛된 죽음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범죄한 자를 책에서 지워 버리시겠다는 것은, 책에 그 이름이 있었는데 지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지워 달라고 했던 모세의 이름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반면, 범죄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 백성 가운데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이다. 모세는 범죄자들의 이름이 자기와 같이 생명책에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 중재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이 책에 확실이 없다는 것을 이러한 표현으로 알려주신 것이다.

Q. 주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신 백성은 선한 일을 위해 지어진 자들이다(엡 2:10).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표시로 확인할 수 있는가?
딤후 2:20-26 _____

* * *

3.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위한 사건이다.

예수님이 거듭 사용하신 말 가운데 “내게 주신 자”(요 6:39; 17:9, 24; 18:9)라는 표현이 있다. 여기서 ‘주셨다’는 시점은 창세 이전이다(엡 1:4). 예수님의 구속은 이들을 위해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요 17:9). 예수님은 이들을 위한 어린양으로 창세 전에 준비되었고, 이들을 위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맞으셨다(계 17:14). 어린 양의 피는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위해 흘려진 보혈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철저히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일어난 사건이며(단 12:1; 계 20:15), 그 책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계 21:27).

Q.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엡 1:11-14 _____

* * *

기도

사랑의 하나님, 구원이 우리 행동에 달려 있다면 참으로 부족한 저희로서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주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은 자로 주 앞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주께서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늘 덮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라는 이 사실이 오늘의 힘이 되고 앞 날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존귀한 구원을 주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